

2017. 제2회

강원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강원도립대학교
GANGWON STATE UNIVERSITY

2017학년도 제2회 강원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발언요지

< 개 요 >

◇ 심의일자 : 2017. 9. 7.[목] / [서면]

◇ 참석위원 : 총 15인 중 13인 참석

- 참석위원 : 박옥연, 박석규, 한동준, 장일재, 박병수, 권혁열,
오세봉, 최교호, 정호선, 최명섭, 김용태, 장원준,
이정민

- 간 사 : 소은주

◇ 심의안건

- 2016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2017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은 향후 재심의

위원별 주요 발언 요지

발언자	발 언 주 요 내 용
위원장	당초, 심의 예정이었던 안건 중 “2017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실적인정 기간 및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 시기 등 비용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강원도와 협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강원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되어, 향후 재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며, 본 재정위원회에서는 “2016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기로 함.
간 사	<2016학년도 대학회계 결산(안) 제안설명> 세입은 예산액 12,300,000,000원에 대해, 징수액 12,320,208,681원, 세출은 예산액 12,300,000,000원에 대해, 지출액 11,702,030,72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06,336,00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1,841,954원 임. 세입은 전년대비 8,807백만원 증으로 250.6%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5년까지 존재하였던 특별회계 기성회계가 2016년부터 폐지되면서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된 사유 임. 대학회계 총 세입 중 강원도 지원금이 7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함. 세출은 전년대비 8,625백만원 증으로 280.3% 증가 함.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인건비성 경비로 53.5%를 차지 하며, 세출의 급격한 증가 요인도 세입 증가 요인과 동일 함. 붙임,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서와 부속서류 및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람.
장일재 위원	정원 감축, 장학금 선면제 확대 등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로 전체적으로 자체수입금이 감소했지만, 산학협력단으로부터의 전입금 확보는 긍정적으로 보임. 향후에도 이러한 자체수입금 증액 노력이 적극 필요 하며, 국비 확보를 통한 산학협력단의 활성화 노력도 매우 중요 함.

발언자	발 언 주 요 내 용
정호선 위원	예산 규모 대비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해 보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대학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하루속히 대학의 더 나은 발전을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예비비 예산액의 대부분을 집행 했는데, 내용을 보면 통합지원센터 신규구축 비용이 전부임. 대학의 각종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사전에 계획하고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음. 예비비는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전용의 건도 마찬가지로 판단 됨.
오세봉 위원	명시이월 예산을 제외하고도, 4억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추경 예산 편성등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2016년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전 교직원이 노력해 준 결과, 구조개혁평가 후속과제 2차년도 이행점검에서 우수등급에 선정되어 정부 재정지원제한 해제의 긍정적이고 뜻깊은 결과를 가져왔음. 앞으로도 2주기 구조개혁평가를 철저히 대비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금회 2016회계연도 대학회계 결산안에 대해 전체 위원들이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재정위원회 주요발언 요지(회의록) 날인자는 대학 내부 위원중에 위원장인 본인과, 장일재 위원, 박석규 위원으로 하고자 함.